

## 제 1 교시 언어영역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이들은 모두 2 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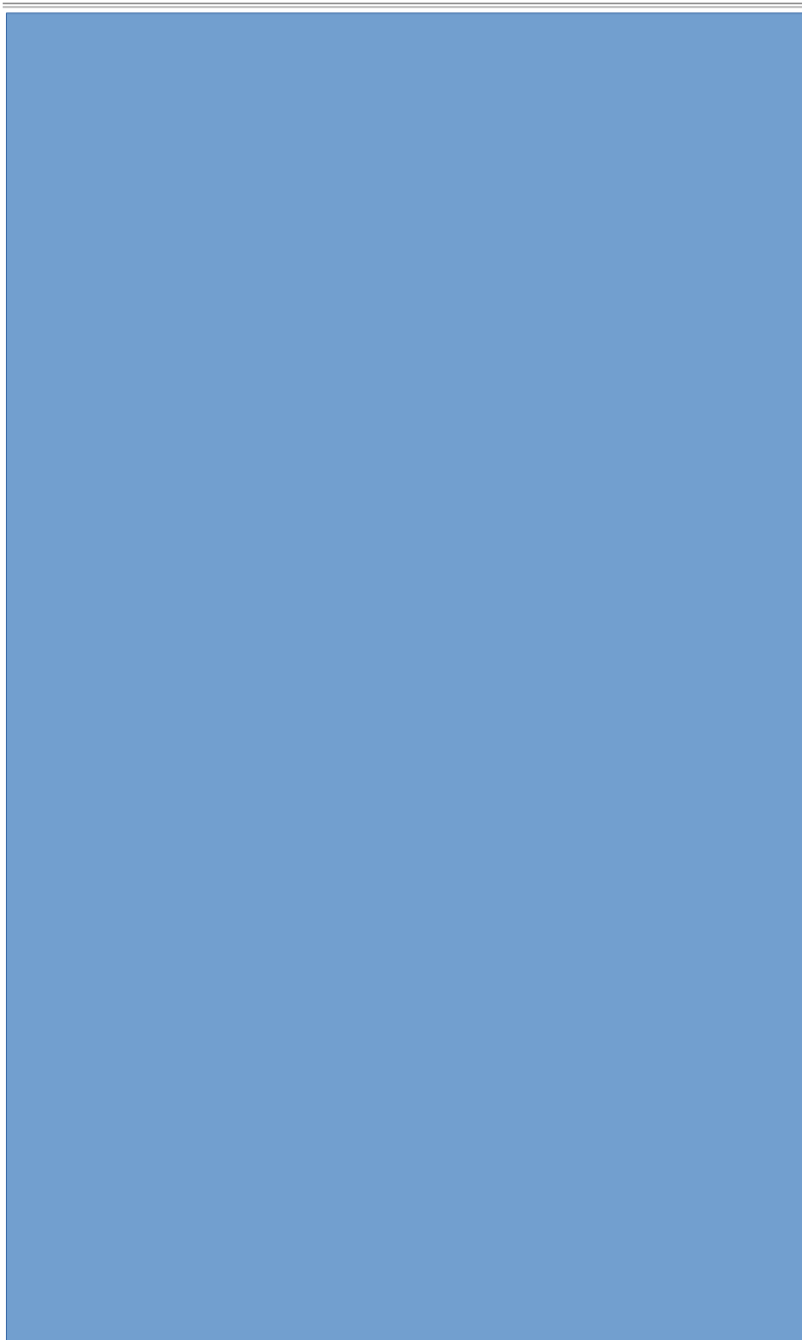
여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려고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이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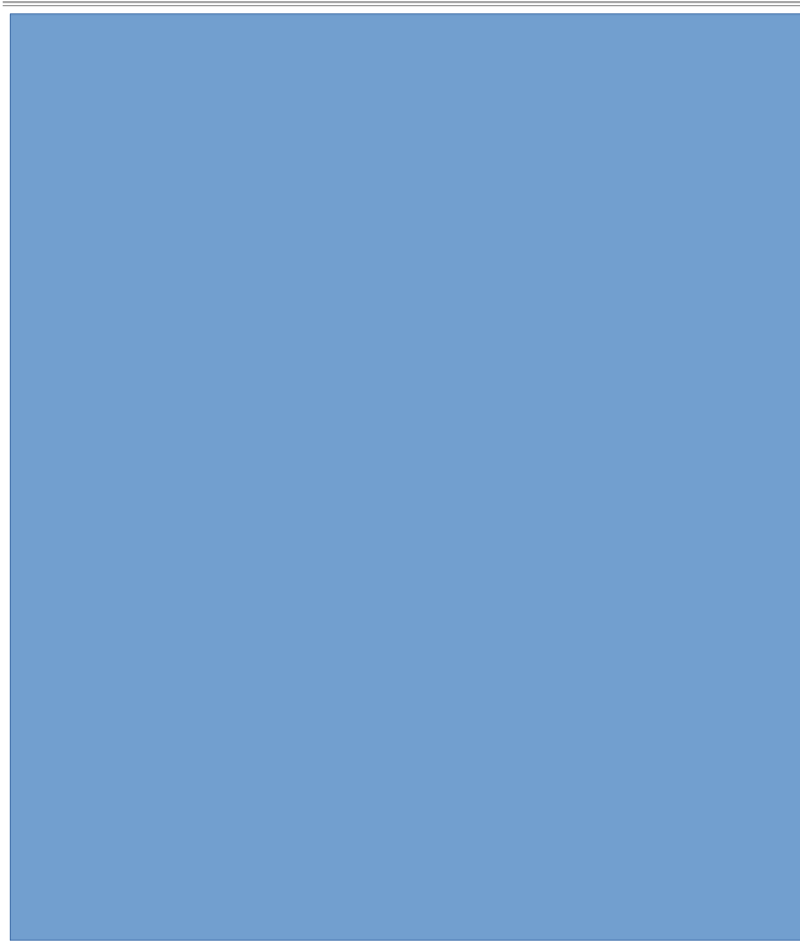
# 언어영역

---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어영역



# 언어 영역

문화라는 말이 지금처럼 인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적은 없었으며, 문화가 이렇게까지 보통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다. 문화는 이제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이다. 문화가 우리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세계는 기술 전쟁 시대에서 문화 전쟁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만 여겨지던 문화가 어찌하여 살벌하기만 한 '전쟁'과 손잡게 되었으며, □첨단 무기 구실까지 하게 된 것일까?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왜 21 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부르는지, 또 그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화 산업'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문화 산업의 한 예로 영화를 들 수 있는데, 몇 년 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 공원'이 벌어들인 돈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1년 동안 자동차를 수출해서 얻은 수익보다 조금 많은 8억 5000만 달러라며 언론이 대서 특필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곧이어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포켓 몬스터'는 출시 석 달만에 무려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문화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산업의 후원자가 이제 특정한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대중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도 대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기업도 이를 좌시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산업은 대중 문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업과 관련시켜 보자. 기업은 시장을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조직이다. 기업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지금같이 신경을 곤두세운 적이 없었으며, 규모가 큰 기업도 시장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당장 위기에 몰린다. 산업 사회가 가고 지식·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찾게 되었고, 시장 구조도 이런 변화에 맞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훈훈한 감동을 원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정서적 요소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예술적, 문화적 요소를 찾게 된 것이다. 기업 활동과 문화 예술의 만남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는 측정할 길이 없다 보니 전통적인

경제학이 지배하는 산업 사회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모두 강력한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문화적 이미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들은 프랑스 제품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프랑스 향수를 사려 한다. 거기엔 문화적 부가 가치가 묵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처방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갖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가졌고, 그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문화는 개성을 가진 것이고 그 나름의 역사와 풍토에서 자란 것이어서 우열을 논하기 힘들다. 보는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문화에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㉞

예술  
정치  
경영  
문화  
경제

어영역

---

--	--

# 언어영역

## (가) 깃발

유치환

①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나) 추천사

서정주

향단(?あ)아 그넛줄을 밀어라.

떠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①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던지시 타고 내려오면  
②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③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 어영역

㊤짙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지 않으렵니까?



# 언어영역

---

은?



어머니, 당신은 저 하늘을 알으십니까?  
채색한 구름 위로 그네 타고 오르면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노닐고  
내 가슴 울렁이게 하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을 알으십니까?

# 어 영역

원자핵을 간단히 핵이라 부르는데, 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자는 가운데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구름처럼 움직이고 있다. 원자의 크기란, 핵 주위에 넓게 퍼져 있는 전자의 운동 범위를 가리킨다. 즉, 한 개의 핵은 그 운동장 가운데 있는 알사탕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

나머지 공간은 모두 전자의 운동장이다. 반면에  $\alpha$ 의 무게는 99.9% 이상을 핵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날파리처럼 돌아다니고 있을 뿐, 무게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alpha$ 핵을 모아서 주먹만한 크기로 만든다면, 그 무게는 원자 하나의 무게보다 무려 1조 배나 더 큰 원자의 무게와 같다.

이것은 63 빌딩 2 개를 합친 무게와 비슷한 것이다. 핵 속에는 핵자(?)라고 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뭉쳐 있다. 이들을 뭉쳐 있게 하는 힘은 이 우주에 알려진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고 세다. 이 힘을 핵력이라고 한다. 이 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만 작용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곧 약해지므로 핵 속에서 핵자들끼리 결합할 때에만 작용한다. 그래서 핵이 커지게 되면 핵자들 간의 거리가 멀어져 서로간에 작용하는 핵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alpha$ 핵은 그 속에 있는 양성자들 사이의 전기력이 밀어 내는 힘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작은 핵 덩어리로 분해된다. 작은 덩어리 상태일 때 더 안정적으로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핵이 가질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약 260 개 이하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이런 핵자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핵자들은 중간자라는  $\pi$ 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중간자로 된 국물 속에 양성자, 중성자라는 건더기가 있는 국과 같다. 이 국물 속에 있는 핵자의 운동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일은 없다. 이들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이 궤도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차곡차곡 싸여 있는데 핵자는 자기가 속한 껍질 내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나면, 핵자가 바깥쪽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껍질이 비게 되면, 이 빈 자리를 바깥 껍질에 있는 핵자가 얼른 메우게 된다. 그러면서 강한 빛인 감마선을 뿜어 낸다.  $\alpha$ 이 감마선은 X선보다도 백만 배나 강력하기 때문에 원자 또는 핵과 충돌하여 원래 상태를 심하게 흔들어 놓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감마선을 쏘이면 세포가 죽거나 유전 인자가 변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쫓긴  $\alpha$ 는 어떻게 될까?

내쫓긴 핵자의 대부분은 중성자인데, 이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다른 원자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다. 전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원자 속으로 들어갈 때, 전자들이 마치 날파리처럼 중성자에 부딪치지만, 무거운 중성자가 핵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alpha$ 정지해 있는 쇠구슬을 다른 쇠구슬로 부딪치면 두 개가 모두 튕겨 나가듯이, '침입자' 자신도 내쫓긴 중성자처럼 튕겨 나가기 쉽다. 결국, 날아다니는 중성자 수는 자꾸만 증가하게 되고, 점점 부딪치는 수, 즉 핵 반응이 빨라져서 '폭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침입자'보다도 더 세게 핵자가 튕겨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적은 에너지를 집어 넣어서 더 큰  $\alpha$ 를 얻을 수는 없을까? 이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핵 속에서 핵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투수가 던진 공보다 타자가 때린 공이 훨씬 빠르듯이, 튕겨 나오는 것의 에너지가 더 클 수 있다.  $\alpha$ 이것을 실생활에 이용할 길은 없겠는가? 이러한 궁금증들이 이제까지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원동력이 되었다.

# 언어영역

이다. 단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조는? [2.2 점]

[앞의 줄거리] 모처럼 휴가를 얻은 '나'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계신 노모를 찾아간다.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 성가(???)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집을 개량하고 싶어하는 노모의 마음을 알고도 애써 외면하려 한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이 노름과 주벽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예전에 살던 큰 집을 팔게 되었는데, 그 때 노모는 도시에 나가 공부하다가 모처럼 찾아온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옛집을 샀던 집주인에게 간청하여 '나'로 하여금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했던 일이 있었다. 다음날 새벽 노모는 장터 차부까지 '나'를 바라다 주고 혼자 눈길을 밟으며 되돌아 가셨다. 아내가 그 때 일을 캐묻자 노모는 '나'에게는 한 번도 해 주지 않았던 그 날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 주고, '나'는 잠결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피안으로 사라져 가 주기를 바라 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이 없는 묵은 빗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 갈 수가 있었구나……."

역력히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닌게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앓았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리고도 아직 그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든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서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 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한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 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장터 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 일 만한 데까지 가니까, 그 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수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 하고 매정하기만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 하고 덜크렁덜크렁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 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 마디를 끼어 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고 있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을 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야. 냇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 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 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거냐……."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 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 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잖나. 지금까지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것 혼자서 되돌아 서려니… …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 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 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 디, 그 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구 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 때 일을 말씀이세요?"

# 어영역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 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중략>

"어머님, 그 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터 눈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 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 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잇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 언어 영역

유명한 인류 언어학자인 워프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구조(?)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색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어에서 초록,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혹은 파랗다)고 한다. '푸른(파란) 바다', '푸른(파란) 하늘'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분명히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말을 쓰기 때문에 그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뜻이 된다. 말을 바꾸어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객관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의 세계라기보다,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언어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리워 왔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도 한다. 인구어(? L?) 계통의 말들에는 열(?)이라는 말이 명사로서는 존재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동사형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과학자들은 열을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다(명사는 실상을 가진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따라서, '열'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역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말 중 호피 어에는 '열'을 표현하는 말이 동사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호피어를 하는 과학자가 열의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썼다면 열이 역학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아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가 그만큼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어상의 차이가 다른 모양의 사고 유형이나, 다른 모양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색깔의 문제만 해도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말이 그 언어에 없다고 해서 전혀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진하다느니 연하다느니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같은 종류의 색깔이라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다. 물론, 해당 어휘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인식하기에 빠르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어 없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이론도 그렇다. 생각은 있으되,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 언어 영역

있으며,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도 흔한 것이다. 음악가는 언어라는 매개를 ㉠ 통하지 않고 작곡을 하여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하며, 조각가는 언어 없이 조형을 한다. 또, 우리는 흔히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생각을 이제까지 없던 새말로 만들어 명명하기도 한다.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언어영역

나온다.)

맹 진사 : 헛! 누가 나선 일인데.

조심성 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구. (한씨와 유모, 안에서 나온다.)

왔어?

# 어영역

과 성산(?)과 자신대로 허허허, 안 될 게 어딴드람.

워 드러야겠구려.

맹 진사 : 공덕비? 아함 그렇지, 허허허…….

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나 신분 상승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않은 것은?

# 언어 영역

(가) 어느 시대에든지 자아 실현에 장벽이 되는 요인들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수많은 문제 요인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성 차별이 만연된 이 사회에 태어날 때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이 편견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에 대한 모방 등을 통하여 자아 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 관념이 되어 자리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나) 최근에 이르러 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심리학에서 창출해 낸 것이 바로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 모든 여성은 '여성답고', 모든 남성은 '남성다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던 고정 관념을 뒤집었다. '양성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적이라고 규정지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예를 들어, 남을 잘 돌보아 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애롭다는 등)과 남성적이라고 규정지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예를 들어, 용감하고 논리적이고 추진력이 있다는 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생리적으로 보면, 남녀는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만 남녀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이 두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개인의 내면에 공존해 있다. 전통적 심리학에서는 남성적인 남성, 여성적인 여성과 성별이 뒤바뀐 이상 심리자로 사람을 나누어 왔는데, 이러한 구별법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지적하여 오다가, 1970 년대에 ◎벵을 비롯한 진보적 심리학자들이 양성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낸 것이다. 이 새로운 이론을 내세운 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은 성별에 관계 없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보는 성격과 남성적이라고 보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벵의 주요한 연구 업적 가운데 하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벵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둘 사이의 균형의 정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라) 양성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토론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양성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양성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고정 관념을 창출해 낸다는 지적과 함께 양성성의 속성은 달리 규정되고 있다. 즉, 양성성을 양성적인 사람이 지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란 첫째,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 셋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들고 있다.

(마)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성적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만 지니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다양한 □자극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그때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에 따른 편견을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양성성의 일반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 진보적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양성성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양성성을 지닌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어 영역

은?

[Redacted text area]

토끼를 그 영덕전 너른 마당에다가 서너너덧 바퀴를 동댕이쳐서 내궁글려 노니, ㉠토끼란 놈이 눈을 깜작깜작, 좌우를 살펴보니 천택지신과 무수한 어병지졸이 겹겹이 둘러쌌거늘, 진퇴유곡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되라. 토끼란 놈이 하릴없이 꼭 죽었지. 눈을 깜작깜작 뜨고 있을 적에, 용왕이 이만 히고 보더니마는, "어,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토끼 배 따고 어서 간 내어 소금 짚어 올려라."

분부를 했거든, ㉡썩 토끼 배 따고 간 내어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었을 텐데, 말을 했었다. "토끼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여 명의한테 문의헌즉, 네 간이 으뜸이라기로, 어진 신하를 세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어라. 너 죽은 후에 나무 비석이라도 세울 것이니 조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혈 말이 있걸랑은 말이나 히고 그냥 죽어라." 토끼란 놈 그제야 인자 죽을 데 들어온 줄 알았구나. "어뽀사, 이거 큰일났구나." 눈을 깜작깜작하더니,

한 피를 얼른 생각하여 배를 훔쩍 내밀며, "자, 내 배 따 보시오." 용왕이 의심이 났지. 저놈이 배를 아니 따일라고 반발을 할 터인데, 배를 의심없이 내민 것이 필유곡절이라.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히고 죽어라." "말할 것도 없고, 소퇴의 배만 착 따 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 <중략>

말을 전해 났던지 용왕이 별령 넘어갔던가 보더라. 제신들을 돌아보며, "이 일을 어찌 할꼬?"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대체 간 유무는 알 수가 없읍내다.", "어, 그러하면 토끼 풀어 주어라." ㉢토끼를 풀어 주어 전상에 올려 앉히고, 용왕이 토끼를 달래는데 이치에 꼭 당게 달래졌다. "토공 듣게. 내가 인제곤 잠시 히던 일에 대해서는 부디 노엽게 생각지 말게 잉." 토끼란 놈, "그럴 일이요, 고마운 말씀이요."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술상을 들였는데,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한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먼저 몇잔 먹고 토끼에게 술을 권해 논 것이, 토끼 이 잡것이 물색 모르고, 세상 술과 같은 지 알고, 맛보느라고 이삼십잔, 먹어 보느라고 오륙십잔, 한 칠팔십잔을 먹어 논 것이 술이 깜빡 취했던가 보더라. ㉣앞발을 번쩍 치켜들더니 출랑 출랑 출랑 노는구나.

말말을 해놓으니, 별 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내면 초목 금수라도 비소할 터이오.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망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허드래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맥혀, "이놈아 별 주부야, 너 날과 무슨 혐오 있나. 너 이놈, 내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내 목숨 너의 나라 원귀 되어, 너의 용왕 백년 살 것을 하루도 못살 터이고, 너희 수국 만조백관을 한날 한시에 모도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옳다, 배 갈라라. 똥 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말을 잘 해 났던지 용왕이 돌려서 여러 신하를 가만히 보더니마는, "네 이놈들, 다시 토공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어망살 앞으로 정배를 보내리라!" 분부를 해놓으니 별 주부가 막혀, "이놈, 용케 잘 살아간다. 네 이놈, 살아가기는

# 언어 영역

살아간다는 양심은 있을 것이야. 할 수 없다. 내 등에 업히어라."

(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 카메라를 들고 무엇인가를 필름에 담는다는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종군 기자나 사진 작가들의 경우에도 전쟁에 실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현실에 개입하지 않은 채 사실을 기록한다는 성격 때문에 사진은 카메라를 든 사람을 열외의 인물로 만든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물론,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엄숙한 순간에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식장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나) 그래서 흔히 우리는 적어도 보도 사진이나 화보 잡지의 사진만은 연출한 것이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사진이 아무런 조작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아 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어떤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기도 하고, 피사체가 되는 사람이 의식적인 포즈를 연출하기도 한다. 결국 사진기를 들고 무엇인가를 찍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다.

(다) 미국 영화 <특종(원제 : Public Eye)>은 사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영화이다. 주인공 '번지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뉴욕 시가지를 누비며 찍은 사진을 신문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이다. 영화 첫머리에서, 경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여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번지는 총을 맞고 죽은 마피아의 사진을 찍어 특종을 잡게 된다. 그는 피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 적절한 구도를 만든 다음 플래시를 터뜨린다. 나중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신문 독자들이 피살자의 모자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살자의 얼굴 앞에 모자를 놓아달라는 주문까지 한다.

(라) 때로는 사진이 그것을 찍은 사람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 가장 적절한 예는 영화 <프라하의 봄>에 나온다. 사진가를 지망하는 여주인공은 1968년 봄, 탱크를 앞세우고 프라하를 점령한 소련군이 시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진에 담는다. 그의 의도는 물론 그 사진들을 서방 세계에 보내서 소련의 행위를 고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소련을 배후로 둔 경찰의 손에 들어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된다.

(마) 사진은 또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다. 모든 초상화가 그렇듯이 사진으로 찍힌 그 시간은 사진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의 기호 형태로 저장된다. 그런데 그 기호는 영상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아주 다르다. 주어도 서술어도 없으며 단지 단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은 서술적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다.

따라서 아무런 설명도 붙지 않은 상태의 사진은 사진을 찍기 이전과 이후의 자세한 사정을 말해 주지 못한다.

# 언어 영역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되었는지, 그 속에 어떤 인과 관계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이런 사진의 성격 때문에 똑 같은 사진에 전혀 상반되는 설명이 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은 사진을 다른 매체의 보조 수단으로 머물게 하는데, 특히 신문, 잡지 등의 저널리즘에 쓰이는 사진에는 반드시 설명을 붙여 사진의 성격을 규정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보조하는 한편, 기사에 사실성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술성의 부족 때문에 사진은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증거물로 그릇되게 이용되기도 한다.



# 언어 영역

㉠ 유년·년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년년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한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년·다

년납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은 씨 잇노라, (e)녹?사?의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무?심한 ?백년구년년내쫓년·년가 제 쫓년·년가

?물?외에 조한 일이 ?어?부 ?생?애 아니러냐

비년 떠라 비년 떠라

?어?옹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사·?시?흥이 한가지나 ?츄 : 강이 은듬이라

간밤의 눈 갠 ?후에 X경?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 압회년·년 ?만년경?류?리 디희년·년 ?천?텃?옥?산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선년계년가 ?블년계년가 ?인□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에서 -

(나)

충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쿵쿵, 주정림(???)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  
 (????)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년?년)은 천고절(?년?)이요, 적다정조(?년 ??)는  
 일년풍(?년?)이라.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X년?)을 좋을씨고.

- 작자 미상, 유산가(???)에서 -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영역

확인 사항